

● ISSUE REPORT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I)



역병과 정치, 그리고 인문학: 아테네 역병을 중심으로

—
안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역병과 정치, 그리고 인문학: 아테네 역병을 중심으로

● 안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III.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 I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을 통해서 나는 기원전 431년에 유행한 아테네 역병을 직접 겪은 역사가 투키디데스와 극작가 소포클레스가 남긴 기록과 작품을 통해서 서양 고대인이 역병을 어떻게 바라보았고, 역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세계를 강타하고 코로나19 판데믹 사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사태를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그 여파와 이에 따른 향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 아직은 성급하고,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 대한 인문학적인 관찰과 성찰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시기상조일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재 코로나 판데믹의 담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대체로 두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역병 사태에 대한 관찰 보고 및 치료 및 방역에 대한 담론과 역병과 함께 덮친 경제 위기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를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에 논의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 자본주의의 변화, 세계 패권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비온 뒤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크고 작은 코로나 담론이 출판과 미디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 상업주의”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 코로나 담론 시장에서 인문학적인 반성과 성찰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역병이나는 재난 상황에서 인문학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딱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인문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다. 사실, 하나마나한 말이다. 그럼에도 뭔가를 말해야 한다면, 옛날에 이와 유사한 재난 사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통찰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 정도는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넘치고 넘치는 코로나 담론 시장에 감히 몇 마디를 보태겠다.

세계사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양 학자들의 정리에 따르면, 인류 역사를 뒤흔든 판데믹 사태는 최소한 여섯 번 정도를 들 수 있다.

- 기원전 431년에 발발한 아테네 제국의 역병:페리클레스(Pericles) –
아스클레피오스(Asclepios)
- 기원후 169년에 발발한 로마 제국의 역병:안토니우스(Antonius) –
갈레노스(Galenos)
- 기원후 541년에 발발한 비잔티움 제국의 역병:유스티니아누스(Iustitianus) –
프로코피우스(Procopius)
- 기원후 1346년(1830년 끝남)에 발발한 유럽의 흑사병:르네상스 – 보카치오



- 19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발발한 콜레라 역병: 예르시니아(Yesinia), 파스퇴르 (Pasteur), 코크(Koch)
- 21세기 전 세계에 창궐한 *Corona virus* 역병: 파우치(Faucci), 정은경, 등등.

어쨌든, 인류는 이런 역병들을 겪으면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역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역병의 처방책이라고 하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이를 잘 보여준다. 코로나 역병의 경우, 백신이 곧 나올 것이다. 하지만, 백신의 개발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처방책은 계속 권장될 것이다. 새로운 역병이 언제든지 다시 찾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처방책은 역병이 기본적으로 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질병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역병이 자연 질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역병이 사회 질병임을 말이다.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역병을 막아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사회 질병의 관점에 입각한 처방책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조심하기와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역병이, 개인 질병이 아니라 전염의 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 질병임을 역설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역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 질병 차원에서 백신이 나와야 하지만, 사회 질병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도 결정적이다.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대응도, 백신에 못지않게 역병을 이기는 중요한 방책이다. 사회 질병인 한에서, 역병도 사회적 특성을 띠고 있다. 이는 역병과 동반하는 불안과 공포, 이런 심리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는 약자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외국인, 장애인, 요즘 같으면 유색 인종이 이런 심리의 희생양들이다. 이는 또한, 역병이 경제 활동에도 직격탄을 날리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역병과 함께 사회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반한다는 점도 역병이 국가 질병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의미에서, 역병을 바라보는 종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 질병이고 국가 질병이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코로나19 역병이 국경을 넘어서서 전 인류적 혹은 전 지구적 사태라는 점에서 어쩌면 사회 질병 혹은 국가 질병이라는 성격 규정도

정확하지는 않다. 지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역병의 위세를 놓고 보건대, 그것은 세계 질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병의 규모와 여파와 파장의 성격이 국가 단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역병에 대처와 대응 방식도 국경을 넘어서서 국제적인 지평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금의 세계 상황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긴장은 갈수록 커져 가고, 세계를 이끄는 패권 국가들인 미국과 중국이 역병과 자연 재해의 최대 피해자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역병의 극복은 혹은 역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개별 국가의 국경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사회 질병으로 부르겠다.

역병이 사회 질병인 한에서, 역병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컸다. 어떤 경우는 문명사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를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기원후 169년에 발발한 “갈렌 역병”은 그리스도교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기원후 541년에 발생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지정학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축소와 이슬람 세력의 흥기를 도왔다. 이처럼, 역병은 지정학적인 변경과 혹은 정신사적인 근간의 변화를 만드는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기원전 431년에 발발한 아테네 역병도, 앞으로 자세하게 살피겠지만, 전통 사회의 해체와 새로운 사회의 형성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요컨대, 역병과 함께 동반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테네의 전통적인 가치 체계와 기존 정치적인 위계와 질서를 해체시켜버렸다. 역병은 이 과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조건과 삶의 방식을 재정립하고, 무엇보다도 역병 자체를 막아내기 위해서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특히 정치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반성을 강요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테네 역병은 전통 사회를 해체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사회를 모색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먼저 아테네 역병 사태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관찰을 살펴볼 예정이다. 투키디데스 (Thucydides, 기원전 545~399)의 보고는 역병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병의 전파 동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 동선을 따라서 흥미롭게도 인간을 둘러싼 중층적인 사회 관계의 구조도 드러나는데, 역병의 전파와 창궐에 따라서 개인, 가족, 신전, 국가 공동체가



어떻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해체되어 나가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개인적으로, 병자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극단적인 패략주의를 숭배하고, 질병에서 살아난 자는 삶에 대한 지나친 자만과 과신으로 오만함의 불경에 빠졌다. 사회적으로, 원인을 모르는 질병의 공격에 짓밟힌 공동체는 약한 사람이나 세력을 희생양을 삼아서 질병에 의해서 붕괴된 혼란과 절망을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성이 아닌 감정의 광기에 휩쓸려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황도 잘 포착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포클레스(Sophocles, 기원전 497~406)가 제시한 처방이 무엇이었는지를 『오이디푸스 왕(Oedipus Tyrannos)』을 통해서 살펴보고, 역병의 퇴치를 위해서 테베 시민들이 오이디푸스 왕에게 무엇을 요구했고, 이에 오이디푸스 왕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제시하겠다. 이를 통해서 역병이 사회 질병이라는 인식을 기원전 2500여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II.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431년에서 404년까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서로 맞붙어 싸운 전쟁을 기록한 역사서다. 이 역사서에는 기원전 431년에 아테네에서 발생하여 창궐한 아테네 역병에 대한 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투키디데스의 관찰이다.

(3) 그들이 앗티케에 머무르고 며칠이 되지 않아 아테네인들 사이에 처음으로 역병 (疫病)이 돌기 시작했다. 전에도 렘노스 등지에 역병이 돌았다는 보고는 있었지만, 이토록 역병이 창궐해 인명 손실이 크게 났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다.

(4)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몰라 의사들이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다. 환자들과 접촉이 잦으니 실제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인간의 그밖의 기술도 전혀 소용이 없었다.

신전에 가서 탄원을 해도, 신탁에 물어도, 그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해도 소용없기는 매일반이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재난에 패배하여 그런 짓도 포기하고 말았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2권 47장)

투키디디데스는 산 위에서 아래를 전체적으로 일람하는 방식으로 아테네 역병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인 미셀 스웨르츠(Michiel Sweerts)가 1652년부터 1654년까지 완성한 아테네 역병 재난도다.



미국 Getty 미술관 소장품

물론, 스웨르츠의 그림도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대한 하나의 해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아테네 역병이 바꾸어 놓은 아테네의 상황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해를 돋기 위해서, 그림에 대한 보충을 하면 이렇다. 그림은 죽음에 패배하고 죽음의 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의 표정과 그 와중에서 백주대로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데도 왼손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에서 죽은 시신과 땅을 가리키고, 오른손을 신전을 가리키지만 정작 머리는 죽어가는 노파를 바라보는 파랑 두건과 파랑 토가를 두른 의사의 모습은 치료약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뒤를 따르는, 그림에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묘사된, 젊은 처녀는 상황 파악이 어려운 듯한 표정으로 어리둥절해하면서 손가락으로 옷깃과 치마만 잡아당기고 있다. 무너진 신전 기둥은 그래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준다. 코를 가리고 있는 짧은 노예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찾은 어린 아이가 옆에서 절망에 짓눌려 낙심한 할머니의 모습과 대조된다. 어찌할 줄 몰라 머리를 쥐어잡은 채 망연자실한 아이의 아빠이자 죽은 여인의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널브러진 시신이 방치되어도, 그 시신을 거두어 하는 사람이 함께 쓰러져 있었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모습도 그림의 하단 전면에 그려져 있다. 그 뒤로 신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다. “나만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르고 달려가는 짧은이도 보이고, 하지만 신전의 계단에 널브러져 있는 시신과 그 옆에 고개를 젓하고 앉아 여인은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권위를 가지고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지켜주었던 중앙 관청은 텅 빈채로 비어 있고, 이 와중에도 권력을 탐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서로 등을 돌린 채 권력의 상징인 오벨리스크탑 아래에 서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역병이 만들어 놓은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정치 세력들의 말이다.

투키디데스가 47장에서 54장에 걸쳐서 설명한 역병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대략난감을 넘어서 절대절망의 상태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과 방향을 잃어버린 아테네 국가를 스웨르츠는 한 폭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 하나면 충분할 것이다. 아테네의 역병 상황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묘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의 논의를 위해서 투키디데스의 묘사와 특히 스웨르츠의 그림을 제대로 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관점 포인트를 한 둘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묘사와 특히 스웨르츠의 그림을 재미있게 보는 관점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화면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사실적으로 그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텅 빈 건물이 실은 사라져 버린 국가의 알레고리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치료제를 달라고 국가로 달려가지 않는다. 국가도 딱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역병이라는 재난을 치료해 줄 치료제가 딱히 없다는 점이다. 의사 본인도 갈팡질팡이다. 머리도 손도 제각기 따로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 가족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다시, 투키디데스의 말이다.

(4)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인간의 법도 효력이 없었다. 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자 사람들은 신을 경배하든 경배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판까지 가서 처벌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였고, 죽음이 집행되기 전에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2권 53장)

투키디데스는 역병의 창궐로 국가 차원에서는 질서와 정의를 바로 잡아주는 법률이 붕괴했고, 그 법률을 정당화시켜주고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던 종교마저 무너져 버렸다고 기록한다. 또한 그는 개인 차원에서도 도덕과 윤리가 달아난 자리에 죽음의 공포와 그 공포를 잊게 해주는 망각을 도와주는 쾌락에 사로잡힌 아테네 사람들의 처지를 아주 냉정한 시선으로 묘사한다. 중요한 점은, 투키디데스가 역병의 급습과 확산으로 재난 상태의 아테네에 대한 관찰을 스파르타 군대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을 위해 페리클레스가 행한 연설 다음에 바로 배치시킨다는 것이다. 이 배치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적을 상대할 때, 특히 적군에 의해 참패한 국가의 모습과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진 국가를 희망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페리클레스의 통치 리더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역병에 패배한 아테네의 모습과 이런 절망의 상태를 타개할 페리클레스(기원전 429년 사망)와 같은 통치 리더십이 부재한 아테네의 모습을 제대로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전쟁의 승리에 요청되는 리더십과 역병을 물리치는 리더십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페리클레스는, 비록 스파르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이기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아테네의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불어 넣어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다. 페리클레스의 말이다.



(1) 우리의 정체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베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는 남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통치하기에 우리의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에 모두는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중요한 공직을 맡길 때에는 개인의 탁월함을 우선적으로 보고, 추첨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중시합니다. 또한 누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탁월하게 행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 (3) 사생활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관대하지만, 공적인 일에서는 법을 준수합니다. 법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이든 공직자와 법, 특히 억압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과 이를 어기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불문율로 삼고 그것에 기꺼이 따릅니다. 39 (1) 군사 정책에서도 우리는 적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온 세계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적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군사 기밀을 훔치거나 알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을 추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비밀병기 보다도 우리의 용기와 기백을 더욱 믿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우리는 적들과는 다릅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어려서부터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엄혹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그들에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 41 (1) 한마디로 우리 나라 전체가 헬라스 세계의 학교입니다. (...) 바로 이런 나라를 위해서 여기 이분들이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살아남은 우리도 모두 이런 나를 위해서 당연히 노고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에 부각되어 있는 국가의 모습이 역병에 패배한 아테네의 모습을 그린 스웨르츠의 그림에서는 텅 빈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통치 리더십의 있음과 없음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록 전쟁에 참패했어도, 페리클레스가 있었던 시기에는, 법이 살아 있었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명예를 중시하며,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가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역병 시기의 묘사에는, 아테네를 아테네로 만들어 준, 법에 대한 경외심, 자유와 관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정신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역병이 전쟁보다 더 심각한 재난임을 보여준다. 전쟁이라는 위기가 국가에 찾아오면, 이는 공동체의 단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지만, 역병이라는 재난이 국가에 찾아오면, 특히 개인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므로, 국가를 유지해 주었던 문명 기제들이 아무런 소용과 효력이 없음이 드러난다. 의사도, 가족도, 국가도, 신전도 병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역병으로 말미암아 문명의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아테네 재난 사태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관찰은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여러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소위 “말세(末世)”의 모습, 다른 말로 문명이 해체되는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에 대한 생각도,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신과 신전에 대한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그것들은 더 이상 생명을 지켜주는 기제도 아니고 죽음을 막아주는 장치도 아니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죽음의 세계로 데려다 주는 저승 사자들이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다. 역병도 아테네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투키디데스는 역병의 발생과 창궐에 대한 관찰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역병의 퇴치와 극복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역병의 퇴치도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임에도 말이다. 물론, 역병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냥 견디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하지만, 역병이 휩쓸고 지난 다음에 관찰되는 아테네의 일상 모습과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즉 이른바 Post – Pandemic 시대의 양상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관찰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말이다.

(1) 이렇듯, 아테네인들은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다.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도시 바깥에서는 영토가 약탈당했다. (2) 이처럼 어려운 시대에는 노인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지는 노래를 노인들이 입에 올리는 법이다. “도리아 족과 전쟁을 벌이면 역병도 함께 따라온다”고. (3) 옛 노래에 나오는 단어는 ‘역병(*loimos*)’이 아니라 ‘기근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limos*)’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둘러보면 ‘역병’이라는 말이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어제나 자신의 기억을 자신의 경험에 기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 도리아 족과 또 다시 전쟁을 벌이고, 그 결과로 기근이 찾아온다면, 그때에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기근’이라는 말로 노래할 것이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제2권 54장)

인용은, 요즘 인구에 회자되는 “경제 코로나”에 해당하는 아테네 역병 사태 이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투키디데스는 기근이 이끌고 오는 약탈과 방화와 같은 일탈 범죄들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역병과 함께 찾아 온 기근이 합작해서 만든 사회 현상의 관찰에 집중한다. 어찌면 이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pleonexia)”이었다. 이 욕망은 전쟁이라는 외적 요인과 결합하여 부풀대로 부풀어 올랐다. 이렇게 부풀어 오른 욕망의 풍선을 탄 아테인들에게 전쟁은 이중적인 것이었다. 한편으로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단이었다. 아테인들이 택한 것은 후자였다. 따라서 정치가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배고픈 시민들의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었다. 이 욕망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권력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욕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통찰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다. 전쟁과 함께 역병도 오지만 역병이 오면 전쟁도 함께 찾아온다. 기근과 배고픔의 고통에 시달린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약탈은 선택이 아닌 필수 코스였기 때문이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6권은 최대치로 부풀어 오른 욕망의 풍선을 탄 아테네인들이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가, 시칠리아인들에게 참패하였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려내는 비극도(悲劇圖)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된 것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바로 역병과 배고픔이었다. 아울러 이것들과 동반한 공포와 슬픔과 불안과



불만이었다. 이것들은 또한 외부의 적에 못지않게 중대하고 심각한 것으로 정권의 안위와 존립을 흔드는 요인이었다. 공동체의 통합을 방해하고 사회를 위협하는 사회 불안의 핵심적인 위기인자였다.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알키비아데스는 한편으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부추겨서, 사회적 위기인자들을 외부의 적과의 전쟁을 통해서 외부로 돌리려고 시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그 결과는 아테네의 비극적인 참패였다.

물론 아테네인들도 배고픔이 불어 넣은 욕망은 약탈과 원정을 통한 외적인 해결책을 통해서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역병과 전쟁이 가져다 준 이른바 재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든 해소하고 정화시켜 줄 장치가 필요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극장이었다. 방황하는 욕망과 치밀어오는 분노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짓눌린 사람들을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웃게 해주는 감정의 정화 장치가 희극이고 비극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을 공포와 연민을 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부른 것도 실은 비극이 전쟁과 역병에 짓눌린 사람의 마음을 고통을 치료해주는 정화시켜주는 치료제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을 가지고 바라볼 때 분명하게 해명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원전 419/418년에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과 디오니시오스의 극장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는 자연 질병으로서 역병을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곳이지만, 다른 하나는 사회 질병으로서 역병이 넣고 퍼뜨려 놓은 공포와 연민,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 정화시켜 주는 치료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디오니시오스 극장은 아테네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시민들이 역병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면적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나는 역병을 자연 질병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질병으로 보는 것이었다. 자연 질병으로서 역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아테네 시민들은 기원전 419/18년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비극을 공연하는 디오시시오스 극장의 서쪽에 의신이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와 위생을 뜻하는 의신인 휴기에이아(Hygieia)를 모시는 신전을 들 수 있다. 이 신전이 세우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 아테네 역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펠로 폰네소스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이 신전의 건립과 건축을 주도한 사람은 텔레마코스 아카르네아스(Telemachos Acharneas)였다. 그의 공적을 기리는 송덕비가 지금도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석에 에피타우루스에서 의학의 신을 아테네로 모셔왔다는 이야기와 도리아 양식의 기둥으로 된 신전의 공간에 환자를 치료하는 일종의 병실(katagogion)을 두어서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다음은 최근에 복원한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다.



아테네인들의 성소인 아크로폴리스에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세워진 것은 역설적으로 역병 덕분에 의술을 바라보는 아테네인들의 시각이 바뀐 덕분이었다. 이와 같은 시각의 전환은 보이지 않는 적인 역병을 상대하는 전술과 전략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회 질병으로서 역병이 남긴 사회적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반 시민들의 감정 정화와 사회적 성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오니시오스 극장을 증축하고 희극과 비극을 경연하는 축제를 제공하였다. 디오시시오스 극장에서 상연된 희극과 비극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부풀어 커져가는 욕망의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전쟁과 역병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적합한 정치 리더십은 어떠해야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이미 말했지만, 아스클레피オス 신전이 일반 시민의 공간인 디오니시오스 극장의 바로 옆에 지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신전과 극장이 모두 일반 시민을 위한 시설이었기에 가까운 곳에 건물들을 붙여 놓았겠지만, 신전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들에게 극장에서 상연되는 희극과 비극 작품은 큰 즐거움과 깊은 위로를 제공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역병에 고통 받는 환자에게 음악이 위안과 치유의 힘을 제공했음을 증명해준다. 다음은 중세의 어느 도시에 새겨진 벽에 새겨진 것이다.



아킬레우스에게 음악을 가르쳤던 켄타우로스가 페스트에 고통 받는 중세의 어느 환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다. 디오니시오스 극장도 이런 치유 기능을 담당했다. 극장은 한편으로 시민들에게 오락과 즐거움을 주는 놀이의 공간이었지만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시민들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아테네의 사회 성숙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알키비아데스의 주도로 시칠리아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원정에서 보여준 아테네 시민들이 겪은 비극적인 참사를 놓고 볼 때, 극장 교육이 과연 일반 시민들의 사회적 성숙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그때에 상연된 작품들은 남아 있다. 이 작품들은 기원전 431년에 창궐한 아테네 역병은 비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당대의 비극과 희극 작가들의 언어와 이야기에 반영되어 있고, 어떤 작품들은 아테네 역병 자체를 주요 소재로 삼았음을 잘 보여준다. 여러 작품을 들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역병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았고, 역병을 이기는 데에 요구되는 정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물었기 때문이다.

III.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통상 비극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기원전 433년 텔로스 동맹을 이끄는 10인회의 위원이었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반기에는 해군 제독으로 여러 차례 전투에도 참여한 정치가였다. 아테네 역병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역병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찰을 중시하는 투키디데스와는 달리 소포클레스는 역병의 원인을 정치에서 찾았고, 그것은 그 해결책도 정치에서 찾았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포클레스가 역병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음은, 역병의 원인과 치료책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치료책이 의술의 처방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화(katharsis)였기 때문이다. 사실 역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의술의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다. 아폴론 신전에 파견되었던 크레온의 말이다.

(크레온)

포이보스 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셨소.

이 땅에서 길러진 나라의 더러움을 몰아내야 하고

치료할 수 없을 때까지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요.

신탁인자라 중의적이지만, 역병의 원인이 어떤 더러움인데, 그 역병의 치료책이 그 더러움을 정화(katharsis)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그 더러움이 선왕의 살해이고 그 살해자를 이 땅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역병의 치료책이라는 점에서, 소포클레스에게 역병은 사회 질병이었고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여기에서 역병을 바라보는 소포클레스의 시각이 자연학의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서, 소포클레스의『오이디푸스 왕』은 역병이 발발한 지 2년에서 6년 뒤에 429년에서 425년 사이에 디오니시오스 극장에서 상연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흥미로운 점은, 작품이 역병이 덮친 테베를 구원하기 위해 무대로 선 오이디푸스의 탄식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는 작품이 아테네의 역병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이디푸스의 탄식이다.

(오이디푸스)

내 아들들이여, 오래된 카드모스의 새로 태어난 자손들이여,
어인 일로 그대들은 양털실을 감아 냄 나뭇가지를 들고
여기 이 제단 가에 탄원자들로 앉아 있는 것인가?
온 도시가 향을 태우는 연기와 구원을 비는 기도와
죽은 자들을 위한 곡소리로 가득하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무대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에게 구원을 간청하는 테베의 사제의 말이다.

(사제)

도시는 이미 풍랑에 마구 흔들리고, 죽음의 파도 아래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대지의 열매를 맺는 꽃바침을.

풀밭에서 풀을 뜯는 소떼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을

덮고 있습니다. 불을 가져다주는 신이 가장 사악한 역병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카드모스의 집은 비어가고,

어두운 하데스는 눈물과 신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

죽어야 할 인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그대의 명예를 지키소서. 이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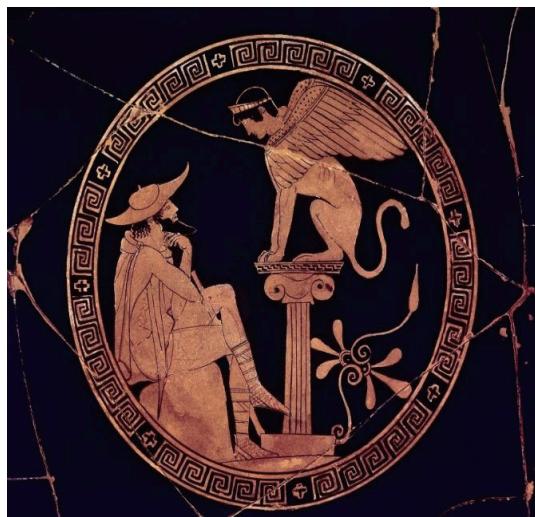
보여준 노력으로 이 나라는 그대를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인용에서 살필 수 있듯이,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역병의 치료자이자 나라의 구원자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역병을 바라보는 소포클레스의 시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아테네를 덮친 역병은 사회 질병이고, 그것의 치료책은 정치라는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이와 같은 진단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치료제가 없기에 역병을 신이 보낸 것이라고 믿었던 당시로서는 자연스런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서, 소포클레스는 역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곧 역병의 치료제라고 본다. 원인의 제거가 치료로 보는 시각은, 일면 의술에서도 통용되는 시각이지만, 일면 정치적인 해결에서 흔히 목도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 의술의 치료이고, 재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의 해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서양 고대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정치적인 장치가 희생양 (scapegoat) 제도다. 재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역병이 발생하게 된 것은 공동체가 오염 되었기 때문이고, 그 오염의 주범을 찾아서 공동체 밖으로, 즉 사회 밖으로 추방하거나 희생시키는데, 이때에 주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약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소외와 배제당하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역병 사태의 규모와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는 하늘에 있는 신들의 분노로 말미암아 역병이 내린 것으로 하늘의 신들의 세계와 땅의 인간의 세계를 매개하는 통치자가 잘못했다고 여기고,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통치자에게 돌리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아 공동체 밖으로 추방한다. 아이쉬퀼로스의『아가멤논』이나 소포클레스의『오이디푸스왕』이 이와 같은 희생양 제도에 의해서 추방되거나 살해된 통치자들이었다. 하지만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왕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과 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통적인 희생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뒤집는 비판에 있다. 전통 사회에서 행했던 희생양 제도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안도하는 사람들의 사유 방식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메시지가『오이디푸스왕』에 흐르는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작품의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을 구성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테베를 오염시킨 발단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를 길에 둘로 갈라지는 어느 삼거리에서 살해한 사건이었다. 오이디푸스는 라이오스가 아버지인 줄을 몰랐다. 시비가 어느 쪽에서 시작되었든, 오이디푸스가 저지른 짓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 잘못이 있다면 젊은 혈기로 자제할 줄 몰랐던 젊은이의 미숙함이었다. 명예를 중시했던 오이디푸스의 입장에서, 그것도 자신도 왕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길거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이디푸스에게는 별 일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테베에게는 재앙의 근원이 된다. 힘과 패기만을 믿은 젊음의 미숙함은 청년 오이디푸스가 보여주었던 미숙함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이 지배하는 도시 테베의, 더 정확하게는 아테네의 정치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청년과 노인 사이에 만연해 있던 사회적인 분위기는 특히 전시에 더욱 위력을 떨친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아리스파네스의 코메디 작품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들에는 청년의 패기와 노인의 지혜 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린 아테네 사회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욕망에 부풀려오른 젊은 오이디푸스들이 지배하는 테베는 전쟁과 같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무서울 것이 없는, 한마디로 겸손의 짠맛을 잃어버린 사회였다. 이것이 역병의 발단이었다고 소포클레스는 진단한다. 따라서 역병의 발단인 원인의 제공자가 추방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따라 오이디푸스는 추방된다.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다. 다름 아닌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오이디푸스에게 살해된 라이오스는 테베의 재난이었던 스팽크스가 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들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스팽크스가 난 문제를 해결하고 테베에 덥친 재난을 극복한다. 다음은 오이디푸스에게 물음을 던지는 스팽크스의 모습이다.



대영박물관 소장

도리아 양식의 기둥에 올라앉은 스팽크스가 던진 물음은 이것이었다.

τί ἔστιν ὁ μίαν ἔχον φωνὴν τετράπονν καὶ δίπονν καὶ τρίπονν γίνεται.

이것은 무엇인가? 네발, 두발, 세발인데, 하나의 이름을 가진 것은.

답은 인간이다. 오이디푸스는 이 답을 제제하여 스팽크스를 물리친다. 그 덕분에 왕좌에 오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자식이자 아버지로 살면서 테베를 통치한다. 이 답만으로는 오이디푸스가 왕좌를 차지할 만한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해서, 약간의 해명을 보충해야 하는데, 사연인즉, 신화적으로 스팽크스는 자연 재난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특히 가뭄과 이와 함께 발생하는 역병과 기근을 일으키는 신적인 힘을 가리킨다. 라이오스는 이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오이디푸스는 해결했는데, 이는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자연 재난을 물리쳤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상징하는 제유 표현이다. 오이디푸스(Oedipus, 부은 발을 뜻함)라는 이름 자체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부풀어 올라 겸손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이는 어쩌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오만함 때문일 것이다. 지식은 원래 겸손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통제를 받는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하므로. 스팽크스의 수수께끼는 겸손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경험과 기술과 지식의 총화로서 인간 문명이 역병이라는 자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즉 헬레네의 학교였던 아테네가 역병의 지배를 받게 되자,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아테네의 무대로 소환한다. 그런데, 작품에서는 소크클레스가 제시한 해결책은 뜻밖에도 오이디푸스의 추방이었다. 역병을 이전에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오이디푸스를 추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데, 실은 여기에서 오이디푸스의 통찰력이 돋보인다. 우선, 소포클레스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스팽크스의 질문을 바꾸어, “그는 누구인가?”로 묻는다. 여기에서 그는 범인을 가리킨다. 하지만 극이 진행되면서, 이 질문은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의 형태로 바뀐다. “나는 누구인가?”로 말이다. 이와 같은 물음 방식의 변화는, 지성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이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물음 형식의 차이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전환을 함의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 형식 자체는 사유의 중요한 한 형식이고 학문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다. 이해를 돋기 위해, 잠시 부연하자. “이것은 무엇인가”的 고대 그리스어는 *ti esti*이다. 영어로 하면 *what is it*이다. 그런데, 이 물음은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다. 실은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기본 판을 짤 때에 사용했던 핵심 도구였다.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를 말(*logos*) 위에 세우려 할 때에, “그것이 그것이”기 위해서는 일단 *logos*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이 *ti esti*였기 때문이다. 이는 요컨대,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절제란 무엇인가”, “덕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의 대화를 담고 있는 플라톤의 초기 텍스트들이라는 점에서 쉽게 확인된다. 예컨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대화가 『뤼시스』 편이다. 어쨌든, 플라톤은 *ti esti*라는 물음 형식을 통해서 인류 지성사에 말(*logos*)로 사물을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규정하는 방식을 선물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정의(definitio)”내리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에서 보았듯이, *ti esti*라는 물음 형식은 플라톤 이전부터 사유의 혹은 학문의 중요한 한 방식이었다. 단적으로, 다름 아닌 자연학자들이 사물과 자연의 원리(arche)를 궁구할 때에도, 그들이 던진 “세계의 시초는 무엇인가”라는 물음도 근본적으로 *ti esti* 형식의 변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의 *ti esti*도 실은 자신의 독자적인 고안물이 아니라 이전부터 내려온 전통의 재활용인 셈이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다. 인류의 사유 방식과 철학하는 길을 통째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포클레스로 다시 돌아가자. 그도 *ti esti*를 재활용한 인물이다. 하지만, 플라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물음을 재활용했다. 우선,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는 누구인가?”로 말이다. 그리스어로는 *tis esti*이다. 차이는 *s*자 하나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물론,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범인은 누구인가”의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이 물음은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형식으로 바꾼다. 흥미로운 점은, 플라톤이 인류에게 선물한 정의내리는 형식으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물음은 소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형태로 주어지는 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포클레스가 던진 물음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사태와 그 사태를 둘러싸고 있는 특수하고 한 인간에게만 고유한 이야기의 형태로 풀 때에 답변이 가능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어쨌든, 소포클레스의 물음이 추적하려했던 해답과 플라톤의 물음이 찾으려고 시도했던 정답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하겠다. 도대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선왕의 살해자가 그 자신이고, 그런데 그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이고,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이 아빠이자 형이고 오빠인 자라는 사실을 플라톤의 *ti esti* 형식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요컨대, 플라톤의 물음 형식으로는 안티고네에게 오이디푸스는 아빠일까 아니면 오빠일까 등의 난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ti esti*에 대한 소포클레스의 재활용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소포클레스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도대체 답이 가능한 질문일까? 내 생각에, 이에 대한 답은 가능하지 않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이렇다. 과연, 당신은 누구입니까의 물음에

대해서, “나는 흥길동입니다”라는 식 이외에 또 다른 대답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다면 과연 그는 누구일까?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실은 그 답을 찾기 위한 각각의 노력이 각각의 삶이고 개별 인생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 이유인 즉, 원래 이 물음이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 자체를 이성적으로 숙고하라는 일종의 철학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소포클레스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것이, 단지 지성사적인 이유에서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던졌는지를 물을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소포클레스가 아테네와 아테네 현실 정치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던 사람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가 던진 자기 인식(self knowledge)에 대한 화두는 사실 욕망의 열기에 부풀어오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겨냥한 것이다. 범률과 신들도 두려워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충고이자 경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너도 인간이고,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상으로 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이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gnothi sauton)”고 외친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물론,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소크라테스를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이었음에도, 그럼에도, 부풀어 오른 욕망의 풍선을 타고 하늘을 떠다니는 무리들을 안전하게 땅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정도가 그나마 최선이었다는 점을 인류의 지성사는 상기시켜준다. 비록 효과와 효력은 미미하지만 말이다. 이 효력의 극대화를 취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정치적으로 테베에서 추방시킨다.

반전은 여기에서부터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인간적으로도 구제해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테베의 구원자로 위치시킨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범인임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오이디푸스는 물러서지 않는다. 더 이상은 진범을 찾지 말라는 아내이자 어머니인 요카스테의 간청도 거절하고, 끝까지 범인을 추적한다. 그리고 자신이 범인을 세상에 알린다. 이로써,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 사실, 과연 그가 추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로,



작품에서 오이디푸스는 통치자로서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준다. 역병으로 죽어가는 테베(Thebe)의 백성을 구원해 줄 방도를 묻는 사제의 말이다.

만일 그대가 지금 통치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다면 텅 빈 나라가 아닌 사람들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성 안도 텅 비고 배 안도 텅 비어 아무도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 왕』 54–57행)

사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통치자의 의무라고 일갈한다. 오이디푸스의 답이다.

물론 내 마음도 나라와 나 자신과 백성들 모두를 위해 비탄해 하고 있소. 그대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운 것이 아니오. 나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수많은 길 가운데에서 가야할 길을 찾고 있소이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찾아 이미 실행에 옮겼소이다. (『오이디푸스 왕』 64–68행)

오이디푸스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한다고 말한다. 통치자의 성실성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밤잠을 설친 끝에 그가 찾아낸 방도는 자신의 처남 크레온에게 테베를 구할 해결책을 뛰토의 신전에서 선택을 구하게 했던 것이었다. 크레온이 가져 온 해결책은, 오이디푸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테베를 다스렸던 라이오스(Laios) 왕을 살해한 자를 찾아내어 처벌해야만 테베에 드리워진 더러움(miasma)이 정화되고(katharsis), 그럴 때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며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이디푸스는 다음의 결기를 보여준다.

나는 이 사건을 재수사하겠소. 진실을 기필코 밝히겠소. (...) 먼 친척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에. 나는 이 나라에서 그 더러움을 찾아 반드시 추방할 것이오. (『오이디푸스 왕』 132–38행)

예언자 테레시아스(Teresias)가 수사의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그런데 수사를 도와달라는 오이디푸스 왕의 간곡한 요청에도 테레시아스는 뜻 모를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의 암박에 그는 결국 이렇게 실토한다.

그대가 이 나라를 오염시킨 범인이기 때문이요. (『오이디푸스 왕』 353행)

이에 오이디푸스는 분노한다. 그러자 테레시아스는 재차 이렇게 말한다.

그대가 바로 그대가 찾고 있는 범인이요. (『오이디푸스 왕』 362행)

얼마나 황당했을까? 도대체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아예 대놓고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테레시아스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이디푸스 왕은 그 배후에 있는 인물로 크레온(Creon)을 지목한다. 이제 전선은 오이디푸스와 크레온 사이로 옮겨진다.

(오이디푸스) 그래도 나는 통치해야 해! (크레온) 잘못 통치할 때에는 통치하지 말아야죠.

(오이디푸스) 오 국가여! 오 국가여! (크레온) 이 나라는 그대만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도 합니다. (『오이디푸스 왕』 629—630행)

그러자 오이디푸스의 어머니이자 부인이자 크레온의 누이였던 이오카스테(Iocaste)가 싸움을 막리기 위해서 무대 위로 오른다.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막무가내다.

진실을 밝히지 말라는 당신의 부탁은 들어 줄 없소 (『오이디푸스 왕』 1065행)

어떤 주저도 하지 않는다. 거침없이 진실을 향해 돌진한다. 그리고 그 진실에 도달한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오이디푸스가 던진 말이다.

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사실이었구나! 오 햇빛이여! 내가 너를 보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기를! 나야말로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태어나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과 결혼하여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구나. (『오이디푸스 왕』 1182-85행)

자신이 찾는 그 범인이 그 자신임을 실토히는 장면이다. 나라를 더럽힌 오염의 원인이
그 자신임을 자백하는 대목이다. 수사하는 자가 동시에 수사 받는 자임이 밝혀지는 광경이다.
자신이 내린 명령에 따라 추방되어 마땅한 진범이, 나라의 오염덩어리가 그 자신임이
온 누리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그 순간, 오이디푸스는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눈을 어머니의 가슴에서 뽑은 브로치로 찌른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눈을 말이다.
그리고 돌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추방의 길을 떠난다. 이렇게 자신이 돌보고
다스렸던 나라 테베를 떠난다. 여기까지가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나라를 떠나 추방의 길에
오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도대체 자신이 범인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진실을 향해 주저 없이 돌진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까?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드라마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할 것이다. 이오카스테처럼 말이다. 주저하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인간적인 태도일 것이다. 자신이 범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물러설
생각도 없기에 수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처소가 역사 자체이기에 하는 말이다. 스스로가 범인이면서 스스로가 수사관이었던 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자세하게 예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개는 추방
되거나 축출되었기에. 그 단적인 사례가 오이디푸스였다. 하지만, 앞에서는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를 추방시켰다고 했지만, 사실, 오이디푸스는 추방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추방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이렇다. 온 나라를 더럽힌 오염의 원인이 바로
오이디푸스 자신이었다. 그런데, 작품의 도입부에서 범인을 내리겠다는 칙령을 이미 내렸다.

이에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내린 칙령에 따라 추방의 길에 오른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이 내린 칙령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는 좋은 통치자였다. 디오니시オス 극장의 무대에 올려진 약속을 지키며 법률을 준수하는 통치자 오이디푸스의 모습은 당시 아테네를 이끌었던 데마고구스들을 통렬하게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더 이상 오염 덩어리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범도 아니다. 자신의 죽인 이가 친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 오이디푸스가 범한 과오는 무지에서 벌어진 사고이지 살인의 죄목을 물을 정도의 사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비극적 과오(hamartia)라고 부른다. 비극적 과오란 원래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어떤 착각 내지 착오로 인해 던진 말 한마디가 혹은 작은 행위 하나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그 결과는 소위 비극적 파국과 파멸로 이끄는 잘못을 말한다. 요컨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위가 무슨 뜻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행위나 잘못 일반이 하마르티아다. 그래서 무지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그것이 몰고 오는 여파와 결과가 나라를 파국으로 이끌 정도의 과오가 비극의 소재로는 가장 적합하다. 이런 이유에서 소포클레스는 그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이디푸스 자신의 주장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꼭 해야 한다면, 그 일이라면 내가 잘 알고 있소. 사정이 이런 즉 내가 어찌 본성이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소. (...) 설령 내가 알고서 행했다 하더라도 그때문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오.
 (...) 자 내 얼굴이 보기 흉하다 할지라도 나를 멸시하지 마시오. 나는 신성하고 경건하며, 이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왔소. 그대들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시든, 그대들의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그대들도 듣고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 동안에는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지 마시오. (『오이디푸스 콜로노스』 제267-291행)

인용은 추방의 초창기가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가는 곳마다 모두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를 쳤고, 그를 선뜻 받아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오이디푸스가 자신을 거의 성인에 가깝게 묘사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물론 그게 신의 뜻이라고 한다. 오이디푸스의 딸 이스메네 (Ismene)가 전하는 말이다.

[신탁에 따르면] (...) 고향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를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이디푸스 콜로노스』 제 389–390행)

아닌 게 아니라 모두들 자신의 나라로 오이디푸스를 모셔가기 위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찾아온다. 오이디푸스의 후계자였던 테베의 크레온과 아테네의 통치자인 테세우스 (Theseus)가 바로 그들이다. 심지어 이 둘은 오이디푸스를 모셔가기 위해서 아테네와 테베 양국 사이에 전쟁도 불사치 않겠다고 으르렁댈 정도였다. 경쟁의 최종 승리자는 테세우스였다. 오이디푸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이방의 땅인 아테네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땅에 묻혔다. 죽기 직전에 오이디푸스가 테세우스에게 남긴 말이다.

테세우스여, 나는 그대에게 이 도시를 위해서 시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을 보물을 알려주겠소. 이제 인도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내가 죽을 장소로 가는 길을 그대에서 보여주겠소. 허나 어느 누구에게도 그 장소를 말해선 안 되오. 그곳이 어디인지를, 어느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말해선 안 되오. 그 곳은 수많은 방패보다 더 훌륭하게, 돌기 위해서 온 이웃 나라들의 창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대를 지켜 줄 것이오. 절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가장 신성하는 것들은, 그대가 그곳에 가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요. 이 나라 사람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설령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도 나는 그것을 말할 수는 없소. 『오이디푸스 콜로노스』 1518–1529행)

테베의 ‘오염 덩어리’가 아테네의 신성한 보물이 되는 순간이다. 도대체 오이디푸스를

모든 악과 불행의 원인에서 모든 이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당연히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많다. 어떤 이는 경건을, 어떤 이는 용기를, 어떤 이는 지혜를 내세운다. 모두 가능한 답이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그것이 나라와 통치자 자신을 지킴에 있어서 창과 방패보다도 더 강력한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나는 그 힘이 개인적인 품성에 포함되는 어떤 덕성을 지칭하는 무엇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었다. 이를 혹자는 성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는 자유 의지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진실을 향해 돌진하려는 용기로 표현되었다는 사실이다. 진실을 마주한 순간에 그는 스스로에게 징벌을 내렸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구했다는 점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그를 구원해 준 비밀이었을 것이다. 그를 성인으로까지 만들어 준 힘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범인이고 오염 덩어리라는 진실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알고 있다 해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기에 오이디푸스는 영웅 혹은 이른바 성인의 반열에 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단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범인이고,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큰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이디푸스는 새로운 영웅이고 성인인 셈이다. 불편한 진실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스스로 깨닫은 사람이 오이디푸스였다.

결론적으로, 테베의 오염 덩어리를 아테네의 신성한 보물로 격상시키려 했던 소포클레스의 진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각설하고, 그것은 진실(aletheia)을 중요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국가란 진실을 뿌리로 삼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소포클레스가 오이디푸스의 시신을 아테네에 묻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를 묻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오이디푸스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려고 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그의 무덤은 도대체 어디일까?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오이디푸스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는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내 생각에, 그곳은 아테네 시민들 각자의 영혼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이것이 소포클레스가 테베의 오염 덩어리를 재활용해서 아테네의 신성한 보물로 만들려 했던 이유였을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의 뿌리는 진실이라는 것이다. 진실성과 진정성이야말로 통치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병과 전쟁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처한 아테네 시민들이 갈망했던 통치자가 실은 오이디푸스였다. 통치자가 가져야 할 성실성과 책임감과 진실성을 모두 갖추고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이 오이디푸스였기 때문이다. 열핏 보면, 소포클레스가 시민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놈들, 애비를 살해한 아들들, 전통을 말살한 천박한 무리들, 해서 “너 자신을 알라(gnothi sauton)!”라는 메시지로 시민 대중을 훈계하고 비판하는 작품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아테네 역병의 관점에서 볼 때 『오이디푸스왕』은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시민들이 갈구하고 갈망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제공하였다. 이것이 소포클레스가 자신이 무시했던 시민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물론 나는 누구인가를 시민 관중에게 묻고 생각해보기를 권하기도 했다. 시민 자신들이 오이디푸스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극장이라는 곳이 본래 교육의 현장이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디오시시오스 극장이 전쟁과 역병으로 말미암아 해체된 아테네를 재건하고 아테네 사회를 건강한 시민 공동체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기원전 431년에 창궐한 아테네 역병을 관찰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관찰하고 성찰한 투키디데스의 관찰과 소포클레스 작품을 함께 살펴보았다. 투키디데스의 관찰을 통해서, 아테네 역병으로 변한 아테네의 사회의 단면을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아테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해체되거나 변화되었음을 함께 들여다 보았다. 소포클레스의

드라마를 통해서는,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짚어 보았다. 이와 같은 관찰과 성찰이 이뤄진 지 어언 2500여년이 지난 오늘—여기, 역병이 다시 지금은 아테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창궐하고 있다. CORONA 19의 이름도 염었다. 역병도 나름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 기세가 대단하다. 물론, 의학의 발전으로 코로나19 역병이 그리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30년 혹은 300년을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코로나가 숨어 있는 은신처가, 아테네의 역병에 볼 수 있듯이, 실은 사람들의 욕망이다. 욕망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서 코로나도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강제로 없앨 수도 얹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그 욕망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기에, 코로나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이 대목에서, 어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성과 기개와 욕망이 각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플라톤의 정의관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국가의 균형과 조화도 개별 시민 각자의 영혼이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욕망의 뒤에 숨어다니는 코로나도 더 이상은 위세를 떨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가 아테네 역병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아테네 역병의 가장 큰 적은 건강과 행운이었지만, 코로나는 치료제와 백신이라는 강력한 적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자연 질병으로서 코로나의 운명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물론, 코로나가 자신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후 변화의 위세를 타고 변신해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이점에서 지금 인류가 코로나의 벌이는 전쟁은 장기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질병으로서 코로나가 인류 문명에 끼치는 영향이, 그 규모와 위세를 놓고 보면 대, 결코 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연 질병으로서 코로나도 못 잡고 있는 형편인지라, 사회 질병으로서 코로나가 남긴 영향과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을 할 상황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테네 역병이 남긴 영향에 대한 인문학적 관찰과 성찰의 사례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력과 영향이 어느 정도일 지에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대한 가늠조차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유사이래, 물론, 인간의 지성과 기술은 깊어지고 넓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진 인류의 지적 축적이 세상을 얼마나 좋게 만들었고, 얼마나 아름답게 바꾸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기원전 431년에 창궐한 역병으로 카오스 상태로 변한 아테네의 모습과 2019년에 발생해서 2020년 오늘에도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역병이 만들어 놓은 예컨대 미국의 혼돈과 혼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지식과 기술이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지식이 아무리 깊어져도,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음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역병이 창궐할 때에 서양 문명은 거칠지만 대략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처하긴 했다. 하나는 기독교와 같은 신의 세계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통찰을 갖자는 것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철학자가 루크레티우스였다. 하지만, 앞에서 이미 소개했듯이, 역병이 정작 닥치면, 합리적인 이해와 통찰이 제대로 작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중세의 흑사병 시대가 그 단적인 실례일 것이다. 하긴 역병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놀린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아무 것도 아닌 소리나 죽고 난 뒤에 구원될 것이라는 신의 음성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인간은 특히 대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 갈 것이 없이, 오늘—여기에서 창궐한 코로나19가 위력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현장 증거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인간의 본성을 재발견하게 만드는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팽크스의 물음은 지금도 위력적이고, 이에 대해서 오이디푸스가 제시한 답변은 지금도 유효할 것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자연의 물음에 답변을 제시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묻는 것에는 코로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 너는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물음도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요구가 해소되기 전에는, 코로나는 물러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21세기 스팽크스인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던진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 가운데에 하나는 “그것은 인류이다”일 것이다. 적어도 코로나19가

자연 질병이지만 사회 질병이고 그런데 국가 질병이지만 세계 질병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일국 차원에서는 퇴치가 불가능한 괴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인류”라는 말은 ‘유’로서만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종’으로 실재하는 지구촌의 인간 공동체를 가리킨다. 인류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적인 코로나19는 퇴치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찾아오게 될 경제 코로나와 안보 코로나의 위협도 극복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기후 변화의 위세를 타고 다시 닥쳐 올 제2, 제3의 코로나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어쩌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스팽크스가 인류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물음일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국경 너머로 생존 조건과 생활 공간을 확장해버린 “인류”가 합심해서 답해야 근본적인 물음일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자연의 경고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report 1

report 2

report 3

report 4

report 5



참고문헌



• 1차 문헌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왕(Oedipus Tyrannos)』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 2차 문헌

Christopher & Mary Dobson. 2. Plagues and History: From the Black Death to Alzheimer's Disease, in Plagues, ed. Jonathan L. Heneeym Sven Friedmann. Cambridge: 2017. pp. 32–65.

Sinon Goldchild. Materials1: the Language of disease in tragedy,in Sophocles and the Language of Tragedy. Oxford:2012, pp. 18–44.

Lester K. Little. 1. Life and Afterlife of the First Plague Pandemic, in: Plague and the End of Antiquity: The Pandemic of 541–750, ed. Lester K. Little. Cambdrige: 2006. pp. 3–32.
Ian Johnston. 1.3 Galen's philosophical and medical antecedents,in: Galen, On Diseases and Symtoms. Cambridge: 2006. pp. 11–20.

Daniel T. Refe. 2. Disease and the Rise of Christianity in Europe, 150–800 C.E.,in : Plagues, Priests, and Demons. Cambridge: 2005. pp. 35–121.